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이 희학(목원대) 역대기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관한 연구* 10

대하 30장 25절에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 ...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에 대한 역대기사가적 언어의 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역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하 30장의 문학적 구조, 대하 30장 25절의 문장구조 및 '회중, 이스라엘 및 나그네'에 대한 언어학적 검토를 하고 있다.

Lee, Hee-Hak Studies on the Meanings of "the Assembly, Israel, and the Sojourners" in 2 Chronicles 30: 25 10

대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관한 연구

이 회학 | 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역대기 사가는 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히스기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대하 29 - 32장),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의 보도(왕하 18 - 20장)보다 대략 170% 정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역대기 사가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신명기 사가가 요시아 시대를 분열된 유다 왕국의 최고 절정기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역대기 사가는 왕국이 분리된 이후 유다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¹⁾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히스기야가

* 본 논문은 제8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 학술대회(2009년 9월 24일)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1)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사가의 평가는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역대기사가는 신명기 사가와 다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서술하기를 원했는데, 요절한 요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 히스기야를 선택하였다. 역대기사가는 열왕기에서 미흡한 종교 개혁가로 소개되었던 히스기야를 완전한 종교개혁가로 만들어 신명기 사가의 역사신학에 중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평행 본문들을 비교하여 열왕기의 내용들이 역대기 본문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신명기 사가적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충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역대기 사가는 놀랍게도 히스기야와 관련된 열왕기의 본문들 중에서 단지 21개의 절만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식적인 서론 구절이나 결론 구절에 해당하는 12개의 절만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²⁾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나머지 100여 개의 절을 자기 자신의 특수 자료에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 관한 역대기의 보도가 열왕기의 자료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으며,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를 자신의 신학적 논조에 비추어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³⁾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로부터 넘겨받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히스기야 상(像)을 묘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⁴⁾ 잘 알려진 바대로,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를 단지 다윗의 후손 중의 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야웨 제의를 개혁한 모범적인 야웨 숭배자이며, 다윗과 솔로몬을 닮은 이상적인 통치자이다.⁵⁾ 그리고 역대기 사가는 다윗-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 북 왕국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짐과 함께 - 남북 왕국을 재통합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대하 30: 1-20). 히스기야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명의 왕과 하나의 성전을 지니게 되었고, 지리적으로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재통합시킨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다(대하 30: 5).⁶⁾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을 모델로 끊임없이 새로운 히스기

속되지 않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2) 아래의 "2. 역대기 30장의 컨텍스트와 구조" 부분을 참고하라.

3) P. R. Ackroyd, "The Chronicler as Exegete," *JSOT* 2 (1977), 21쪽; K. Strübind, *Tradition als Interpretation in der Chronik König Josaphat als Paradigma chronistischer Hermeneutik und Theologie* (BZAW 201),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204-206쪽.

4) J. M. Myers, *II Chronicles* (AncB 13),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5), 169쪽.

5) R. B. Dillard, *2 Chronicle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15),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228-230쪽; S. J. de Veris, "Moses and David as Cult Founders in Chronicles," *JBL* 107, No. 4 (1988), 619-638쪽; 김 정우, 「구약통전(하)」 (서울: 이레서원, 2003), 347쪽이하;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 (2006년 8월), 73-79쪽; 임 현준,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 상," 「구약논단」 31 (2009년 3월), 114-136쪽.

6) P. R. Ackroyd, "The Theology of the Chronicler," *L7Q* 8 (1973), 110-111쪽.

야 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한 신학자였다.⁷⁾ 역대기서에서 히스기야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 2의 다윗’⁸⁾ 내지는 ‘제 2의 솔로몬’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대기의 히스기야 상은 열왕기의 히스기야 상¹⁰⁾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신학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¹¹⁾

역대기 보도에 따르면, 다윗-솔로몬의 이상적인 후계자인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위대한 종교 개혁가로서의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축제를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였다.¹²⁾ 이 두 가지 종교적 조치를 통해 예루살렘에서의 아웨 제의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제의와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자들의 범위에 대한 소개이다. 히스기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봉헌된 이후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린 자들은 일반 “회중”(חֵזֶק, 카할)이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대하 29: 31) 반면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자들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대하 30: 25) 등 좀 더 복잡한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대기 사가적 언어의 특별한 관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학 비평적이고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
- 7) J. Goldingay, "The Chronicler as Theologian," *BTB* 5 (1975), 99-126쪽; J. M. Myers, "The Kerygma of the Chronicler: History and Theology in the Service of Religion," *Int* 20 (1966), 259-273쪽; T. D. Hanks, "The Chronicler: Theologian of Grace," *EvQ* 53 (1981), 16-28쪽.
- 8) R. Mosis,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s* (Freiburger theologische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189쪽.
- 9)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119-125쪽; M. A. Throntveit, *The Significance of the Royal Speeches and Prayers for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Chronicler*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2), 155-162쪽.
- 10) 이 희학, "히스기야 제의개혁의 역사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 (2007), 33-55쪽; L. Camp, *Hiskija und Hiskijabild. Analyse und Interpretation von 1 Kön 18-20* (MThA 9), (Altenberge: Telos-Verlag, 1990); C. Levin, "Joschia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ZAW* 96 (1984), 351-371쪽; H. Weippert, "Die deuteronomistischen Beurteilungen der Könige von Israel und Juda und das Problem der Redaktion der Königsbücher," *Bib.* 53 (1972), 301-339쪽.
- 11) J. M. Myers, *II Chronicles*, 169쪽.
- 12) H.-J. Kraus, "Zur Geschichte des Passah-Massot-Festes in Alten Testament," *EvTh* 18 (1958), 47-67쪽.

2. 대하 30장의 컨텍스트와 구조

열왕기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왕하 18: 3-7)한 반면에, 앗시리아와의 전쟁(왕하 18: 8 - 19: 37)과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단 방문(왕하 20: 1-19)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이러한 분량과 관심의 정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역대기 사가는 히스기야의 제의 개혁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고(대하 29: 3 - 31: 21), 앗시리아의 침략 보도를 위해서는 훨씬 적은 분량만을 허락하였다(대하 32: 1-23).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대하 32: 24-26)과 므로다발라단의 사절단에 관한 보도(대하 32: 31)는 역대기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역대기 사가가 열왕기에서 넘겨받은 자료들을 어떻게 인용하고, 더 나아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자신의 특수 자료를 사용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본문 대조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왕하 18: 1-3		왕하 18: 4	
.....
대하 29: 1-2	29: 3 - 30: 27	대하 31: 1	31: 2-21
왕하 18: 13		왕하 18: 17, 19, 22, 29, 33, 35	
.....
대하 32: 1-2	32: 3-8	대하 32: 9-15	32: 16-19
왕하 19: 15, 35-37		왕하 20: 1-2	
.....
대하 32: 20-21	32: 22-23	대하 32: 24	32: 25-30
왕하 20: 12-13		왕하 20: 20-21	
.....
대하 32: 31	32: 32	대하 32: 33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의 본문 대조표는 역대기 사가가 원래의 역사서의 내용과 구조에 어느 정도 의존하여 자신의 역사서를 서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대기는 전체적인 구조와 순서에 있어서는 열왕기의 도식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지만, 중간 중간에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들을 추가로 삽입하여 히스기야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역대기 사가는 계속하여 열왕기의 역사를 누락시키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시킴으로 신명기 사가가 추구하였던 역사 서술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

였다.¹³⁾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의 보도는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지닌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지만, 서로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히스기야에 의한 아웨 제의의 회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적 조치들에 대한 보도는 거대한 복합체(대하 29 - 31장)를 형성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보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일 뿐이다.

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행한 두 번째 제의 개혁 조치와 관련되는데, 그는 통치 첫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유월절 축제를 거국적으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대하 30장은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역대기의 추가적인 특수 자료에 속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대하 30장이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은 역대기 사가에게서 유래되었다는 의견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¹⁴⁾ 언어, 문체, 문학적 서술방식,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전체 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역대기 사가적 특징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대하 30장은 거의 비슷한 분량에 해당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문장론적으로 볼 때 분리될 수 있는 지점이 감추어져 있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대하 30장 14절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데, 동사의 주어가 대하 30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어서, 대하 30장 14절은 앞 단락의 결론임과 동시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하 30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I. 1~13절: 유월절 행사 준비들

13) P. Welten, *Geschichte und Geschichtsdarstellung in den Chronikbüchern* (WMANT 4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3), 201쪽 이하.

14)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하 30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 주제는 역대기사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한 이 특수 자료와 히스기야에 의해 실시된 유월절 축제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된다: 참고.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CB),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2), 361-364쪽; R. J. Coggins,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the Chronicle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on the New English Bible), (London: Cambridge UP, 1976), 270쪽 이하. 질문은 본문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과 자료들의 출처를 향하게 된다: "대하 30장에 소개된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들이 역사적 흔적을 남겼는가? 거국적인 유월절 축제가 역대기사가 시대 내지는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실행되었는가? 아니면 본문의 사건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순수하게 역대기사가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적 허구인가?"

15) S. Japhet, *2 Chronik* (HThK AT), (Freiburg: Herder, 2003), 382쪽.

- a) 1~5절: 유월절 축제 실행의 결정
- b) 6~9절: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에게 왕의 편지를 보냄
- c) 10~13절: 편지에 대한 반응과 예루살렘으로의 운집
- II.14~27절: 유월절 축제
 - a) 14절: 이방 신 제단의 제거
 - b) 15~22절: 첫 번째 1주일간의 유월절 축제
 - c) 23~27절: 두 번째 1주일간의 유월절 축제

3. 대하 30장 25절의 위치와 문장 구조

유월절 축제 보도(대하 30: 1-27)는 내용적으로 비교적 수미 일관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대하 30장 25절은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그룹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 축제가 지닌 민족적인 환희의 특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 구절은 이미 일주일간 진행된 유월절 축제를 계속해서 일주일 더 연장하게 된 이유(대하 30: 23-24)와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커다란 환희가 없었다는 단언적인 진술(대하 30: 26)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하 30장 25절은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구절들의 여러 다양한 모티브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즐거운 축제”(대하 30: 23b, 25a, 26a), “대규모의 축제”[(연장된 축제일(대하 30: 23a), 엄청난 양의 제물(대하 30: 24a), 성결함을 받은 많은 제사장들(대하 30: 24b),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대하 30: 25)], 그리고 “큰 희락(대하 30: 26a)” 등의 표현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가 최고(最高)·최대(最大)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하 30장 25절은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하계 많은 축제 참가자들의 규모를 자세히 소개함으로 축제의 특별한 성격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축제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분리하여 가능한 포괄적으로 열거하려는 시도는 각각의 그룹들의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네 번에 걸쳐 연속해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ו)는 다섯 그룹의 참가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배열시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된 구성원은 다시 두 개의 분사 문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대하 30장 25절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¹⁶⁾

16) 참고. W. Rudolph, *Chronikbücher* (HAT 21), (Tübingen: J. C. B. Mohr, 1955), 302; J. M.

וַיִּקְרְאוּ	그리고 그들이 즐겨워했다.		
כָּל־קָסֵל יְהוּדָה	1)유다의 모든 회중이	} 남쪽	} 유대인
וּסְבָתָיִם	2)그리고 제사장들이		
וּסְלֵוִים	3)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וְכָל־הַסָּהָל מִבְּאֵיִם מִיִּשְׂרָאֵל	4)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이	} 북쪽	
.....			
וַיִּקְרְאוּ	5)그리고 나그네들이		
מִבְּאֵיִם מֵאֶרֶץ יִשְׂרָאֵל	a.이שראל 땅에서 나온	} 북쪽	} 비유대인 (이방인)
וּמֵיִשְׂרָאֵלִים בְּיַהּוּדָה	b.그리고 유다에 거주하고 있는	} 남쪽	

마소라 본문은 축제에 참가하는 다섯 그룹의 사람들을 '4+1(0.5+0.5)=5'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⁷⁾ 이때 아트나('atnáh)가 네 번째 그룹과 다섯 번째 그룹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으며, 짜케핌(záqépim)은 세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 그리고 5a)그룹과 5b)그룹을 구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은 두 개의 악센트를 사용하여 축제 참가자들을 두 번에 걸쳐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아트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처음 네 그룹은 유대인에 속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은 이방인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짜케핌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룹 안에서의 또 다른 세부적인 사회 계층들을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세 그룹의 남쪽 출신 계층들과 한 그룹의 북쪽 출신 계층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방인 역시 남쪽 출신의 이방인과 북쪽 출신의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리하면 대하 30장 25절은 유월절 축제 참가자들을 "남쪽 북쪽 북쪽 남쪽"의 순서로 소개함으로 전체적으로는 교차 대구적인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yers, *II Chronicles*, 175쪽; H. Haag, "Das Mazzenfest des Hiskia," H. Gese/ H. P. Rüger(Hg.),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Kevelaer: Neukirchen-Vluyn, 1973), 87-94쪽; G. Steins, *Die Chronik als kanonisches Abschlussphänomen* (BBB 93), (Bonn: Peter Hanstein Verlag, 1995), 150쪽.

17) M. Cohen, "Le 'ger' biblique et son statut socio-religieux," *RHR* 207 (1990), 131-158쪽은 축제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1)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제사장, 레위인), 2)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순례자들, 3)유다에 살면서 독립적인 사회 계층을 형성한 무리들(이방인들). 하지만 이 주장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데,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갈링(K. Galling)이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¹⁸⁾ 그는 네 번째 그룹과 다섯 번째 그룹 사이에 있는 접속사(ו)를 병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자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종속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5a)그룹과 5b)그룹 사이에 위치한 접속사(ו)도 병렬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대하 30장 25b절 전체는 네 번째 그룹(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에 대한 동격이라는 것이다. 즉 대하 30장 25b절은 남쪽과 북쪽 출신의 서로 다른 두 그룹의 나그네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 왕국이 패망한 이후에 유다로 내려온 자들이 현재는 나그네로서 유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와우(ו)를 통해 연결된 2개의 분사 문장들은 배타적으로 동일한 주어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론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볼 때 접속사 문장이 지닌 의미상의 특징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사의 의미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열거된 내용과 관련되어 해석되거나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풀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하 30장 25절에 등장하는 유월절 참여 그룹들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역대기 사가가 자신의 역사서에서 사용한 동일한 어휘나 개념들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대하 30장 25절의 언어학적 연구

대하 30장 25절에 언급된 유월절 축제 참여자들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몇 단어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제 ‘회중’(כֹּהֲנִים 카할), ‘이스라엘’(יִשְׂרָאֵל 이스라엘), 그리고 ‘나그네’(גֵּרִים 게림) 등의 단어가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대하 30장 25절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추론해 보기로 하자.¹⁹⁾

18) K. Galling,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159쪽이하.

19) 문장론적인 면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큰 의미가 없어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회중’을 소개할 때에 함께 다루었다.

1) '회중'(קהל 카할)

'회중'(會衆)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²⁰⁾ 운집된 인적 범위와 군중의 성격은 문맥을 통해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개념이다.²¹⁾ "회중"은 구약성서에서 총 134번 등장하고 있는데, 포로 이전의 문헌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었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단지 7번 사용된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3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회중"은 일반적으로 '포로 후기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의 총회'를 가리킨다.²²⁾ 스 10장 1절과 느 8장 2절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대하 30장 25절을 제외하면, 역대기에서 "회중"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구성원들로 세분화되지는 않는다. "회중"은 무엇보다도 왕과 밀접히 연관되어 등장하고 있는데(대하 1: 3; 7: 8; 29: 23; 30: 4), 그 이외에도 방백들(대하 28: 14; 30: 2)과 모세(대하 24: 6)와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회중"은 자주 왕이 상대하는 대상으로 그의 행동의 객체로 언급되기도 하며(대상 13: 2; 29: 1, 10, 20; 대하 6: 3, 12, 13; 20: 5; 30: 24), 심지어는 왕과 언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대하 23: 3).

"회중"은 대하 30장에서 9번 등장하고 있는데(대하 30: 2, 4, 13, 17, 23, 24a, 25b, 25aa, 25aβ), 모두가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의 섬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하 30장 2절과 4절에서 "은 회중"²³⁾은 왕과 방백들과 함께 전국적인 유월절 축제를 히스기야 통치 첫 해 두 번째 달에 개최할 것을 논의하는 상담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회중"은 이미 현존하고 있던 예루살렘 협의체가 아니라, 북 왕국의 두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한 전(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²⁴⁾ 옛 북 왕국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20) H.-P. Müller, "קהל," *THAT* II (1984), 609쪽.

21) F.-L. Hossfeld/ E. M. Kindl, "קהל," *ThWAT* VI (1989), 1210쪽.

22) H.-P. Müller, "קהל," 617쪽.

23) "은 회중"(קהל-היהודה)은 역대기에서 한 번만 독점적으로 북 왕국을 지칭하고 있고(대하 28: 14), 12번에 걸쳐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왕국 분열 이전의 보도에서 6번(대상 13: 4; 29: 1, 10, 20a, 20b; 대하 1: 3), 왕국 분열 이후의 보도에서도 6번(대하 23: 3; 29: 28; 30: 2, 4, 23; 31: 18) 사용되었다.

24) H. Haag, "Das Mazzenfest des Hiskia," 88쪽.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초대를 받고 그 중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모임으로 이 협의체는 현저하게 거대화 된 “심히 큰 회중”(קהל גדול מאד) 카할 라로브 메오드)²⁵⁾가 되었다(대하 30: 13). “심히 큰 회중”라는 표현은 대하 30장 13a절의 “많은 백성”(בני-אמ-רב)을 문장론적으로 받아들여,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커다란 규모의 백성들의 회집을 가리키고 있다.²⁶⁾ 이 표현은 회중의 양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대하 30장 13절의 끝에 위치함으로 유월절 축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하 30장 17, 23, 24절의 “회중”은 대하 30장 13-15절에 소개된 유월절에 참여한 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데, 이들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서 온 자들이다. 그런데 대하 30장 17, 23, 24절의 “회중”은 한 차원 다른 성격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방 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고 유월절의 양을 잡으면서 시작된 유월절 축제 제의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회중”의 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거룩한 “회중”은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의에 참여한 일련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하 30장 25절에서는 유월절 축제 제의의 참여자들이 다섯 그룹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된 것은 역대기 전체에서 대하 30장 25a절이 유일하다. “유다 온 회중”(קהל יהודה קל-יהודה) 예후다는 대하 20장 5절에서 유사한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 구절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קהל יהודה וירושלם) 카할 예후다 비루살람)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민족적인 탄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임과 관련된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회중”과 결합되어 등장하는 곳은 역대기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요시

25) 이 표현은 대하 7장 8절의 “심히 큰 회중”(קהל גדול מאד) 카할 가돌 메오드)과 의미상 일치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축제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양적 규모를 지적해 주고 있다. 이것은 역대기사가 히스기야를 얼마나 철저하게 솔로몬에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려고 했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솔로몬의 성전봉헌 축제와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는 엄청난 규모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거룩적인 행사였으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 축제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평행구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대하 7: 8)이 참여한 행사였는데,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 역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대하 30: 4)이 동참한 민족 전체의 축제였다. 대하 30장 26절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구절은 이러한 역대기사가의 친(親)히스기야적 편입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6) F.-L. Hossfeld/ E. M. Kindl, “קהל,” 1210쪽.

야 종교 개혁과 관련된 보도에서 유비적으로 결합된 표현들이 등장하기는 한다(대하 34: 30; 35: 8, 18).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려는 문학적 방법과 관련되는 것이며, 종교 개혁에 유다 백성 전체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읽을 때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노소”(대하 34: 30)하고 모두 함께 들었으며, 요시아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대하 35: 8)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드렸다.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폭넓은 그룹들의 열거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커다란 축제였다는 설명(대하 25: 25-26)은 대하 35장 18절과도 비교될 수 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요시아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였는데, 이 축제는 사무엘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 행사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이라는 표현 역시 역대기 전체에서 대하 30장 25aβ절이 유일하다. 왕국 분열 이전의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대상 13: 2; 대하 6: 3, 12, 13)이라는 유사한 표현이 있을 뿐이다. 대하 30장 25aβ절에서처럼 특정 지역을 한정시켜주는 부가어적인 분사 문장을 갖고 있는 “회중”은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이스라엘’(יִשְׂרָאֵ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אֶרֶץ יִשְׂרָאֵל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2,51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역대기에는 301번 사용되었다.²⁷⁾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보도하는 대하 10장 이후부터는 매우 복잡적이지만, 북 왕국이 멸망을 당한 이후의 시대를 기술하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지닌 의미상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와 관련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13번 등장하고 있다. 대하 30장 6b절의 “이스라엘”은 족장 야곱을 가리키고 있지만, 대하 30장 1a, 6a절에서는 유다와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북 왕국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의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되고 있으며(대하 30: 5a,²⁸⁾ 26; 31:

27) G. Gerleman, “יִשְׂרָאֵל,” *THAT* II (1984), 783쪽.

28)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지역 표시는 솔로몬의 통치영역과 관련되는데,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1a), 여호와와 동격인 “이스라엘 하나님”(대하 30: 1b, 5b)은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의 종교상의 공통성과 전체성을 암시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하 30장 21절과 대하 31장 1b절에서는 북 왕국 지역과 유다에서 온 축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지만, 대하 31장 6절은 히스기야 편지의 수신인으로 유다에 망명을 와서 살고 있는 북 왕국 출신의 사람들을 말한다.²⁹⁾ 왕의 사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보내졌는데, 편지의 내용은 주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대하 30: 6b)을 겨냥하고 있다. 대하 30장 10-12절은 이 편지에 대한 각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대하 30: 1a, 6a; 34: 21)라는 상호보완적 결합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를 보충해줌으로 전체를 나타낸다. 이것은 대하 30장 25절에서 “유다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이 서로 결합되어 전체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것과 같은 어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땅”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11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삼상 13: 19; 왕하 5: 2, 4; 6: 23; 겔 27: 17; 40: 1; 47: 18; 대상 22: 2; 대하 2: 17; 30: 25; 34: 7). 연구의 어려움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특정한 해당 지역을 가리키는 영토적 관점과 무관하다는 데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땅”은 통치 대상으로서의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 땅”은 어느 곳에서도 특정 지방의 이름이나 지역 이름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지,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다.³⁰⁾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으로의 입주”라는 관용구는 현존하는 국경을 침범한다든지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땅”의 악센트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이 “이스라엘”을 통해 정의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땅”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³¹⁾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상 22장 2절과 대하 2장 17절은 다윗에 의해 실시된

29) W. Rudolph, *Chronikbücher*, 299쪽.

30) T. Willi, *Die Chronik als Auslegung. Untersuchungen zur literarischen Gestaltung der historischen Überlieferung Israels* (FRLANT 1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388쪽.

31) H.-J. Zobel, “*אֶרֶץ*,” *ThWAT* III (1982), 1009쪽.

인구조사와 관련되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은 대상 21장 2절에 따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이다. 대하 34장 5-7절은 이와 비슷한 지리적인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은 이스라엘 땅”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대하 30장 25b절에 언급된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는 옛 북 왕국 지역에서 살다가 히스기야의 유월절 초청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외국 인들을 지칭하고 있다.³²⁾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자.

3) ‘나그네’(גֵּר) 개념

‘나그네’는 구약성서에서 총 92번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 역대기에는 단 4번 등장하고 있다. 이 단어는 역대기에서 언제나 남성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기도문(대상 29: 15)에서 이 단어는 ‘우거한 자’(גֵּרֵי תוֹשְׁבֵי 토샤빔)와 함께 은유적인 자기 호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³⁾ 다른 세 번의 경우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 본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표현 기술을 동원하였는데, ‘나그네’는 언제나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상 22장 2절과 대하 2장 17절에서 ‘나그네’는 다윗-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대하 30장 25b절의 ‘나그네’는 북쪽 땅에서 내려온 이방인들과 남쪽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학자들은 이 구절이 제사장적인 저자 내지는 편집자가 주창했던 이방인들의 제의적인 통합 노력(참고. 출 12: 19, 47f.; 민 9: 14)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³⁴⁾ 그러므로 대하 30장 25b절의 “나그네”는 -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이든, 아니면 이전부터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든 -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유

32)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123쪽.

33) J. P. Weinberg, *Der Chronist in seiner Mitwelt* (BZAW 239),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6), 198쪽이하.

34) J. Becker, *2 Chronik* (NEB 20), (Würzburg: A Töpelmann, 1988), 101쪽; W. Rudolph, *Chronikbücher*, 301쪽;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371쪽.

월절에 참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계명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에 참가할 조건이 이미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하 30장 25b절은 포로 후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 정주하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인들과의 균형 잡힌 제의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였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헨(M. Cohen)은 “나그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 해석에 강력한 의의를 제기한다.³⁵⁾ 그의 견해에 의하면, 동일한 단어가 대상 22장 2절과 대하 2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순수한 이방인을 뜻하고, 대하 30장 25b절에서는 할례를 통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해서 민족적인 축제에 참여한 이방인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코헨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솔로몬이 북 왕국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는 열왕기의 보도가 역대기 사가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예로 들고 있다. 왕상 5장 13절은 솔로몬의 강제노역에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30,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군으로 동원되었다고 보도하는 반면, 왕상 9장 22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노예를 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코헨은 역대기 사가가 솔로몬의 신앙적인 도덕성에 흠집을 입힐 수 있는 왕상 5장 13절을 단순히 제거해 버리고, 대하 8장 9절에서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 비유대인들만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는 왕상 9장 22절의 정보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의한다. 북 지파 사람들까지 강제노역에 동원시킨 솔로몬의 역사적인 조처는 “북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한정된 것처럼 순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대상은 다윗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코헨은 여기서 역대기 사가의 언어 사용법을 강조하는데, 그는 솔로몬의 강제노역에서 면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대하 8: 9 בני ישראל; 베네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과 북 지파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예들과 인종적으로 결합되어 버린 “나그네”(대하 30: 25b גֵּרִים 게림) 사이를 구분한다.³⁶⁾ 그러므로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북쪽에서 내려와 남쪽에서 살고

35) M. Cohen, “Le ‘ger’ biblique et son statut socio-religieux,” 140쪽.

36) 윗글, 142-144쪽.

있는 북 지파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하 2장 17절은 왕상 5장 13-15절과 9장 20-22절의 정보를 결합시키고 있는데,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70,000명의 짐꾼과 산에서 돌을 끄는 자 80,000명을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강제노역의 대상을 “나그네”(גֵּרִים 게림)로 규정하고, 이 단어를 - 구약성서에서 유일무이하게 -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적용하였다.³⁷⁾ 역대기 사가는 이 정의에 따라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민(屬民)으로 이해하였다. 역대기 사가가 팔레스타인에 체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역사적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역대기 사가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소유지를 잃고 새로운 토지 소유주에게 개인적으로 종속된 관계로 빠져든 것도 아니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질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대상 29장 15절을 제외하면, 역대기 사가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단어를 언제나 “이스라엘 땅”(אֶרֶץ יִשְׂרָאֵל 에레츠 이스라엘)과 관련시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상 22: 2; 대하 2: 17; 30: 25; 34: 7). “나그네”는 유다 땅에 살고 있거나 북쪽에서 내려온 개종한 외국인인 것이다.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에서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³⁸⁾ 이러한 적용은 일별하면 제사장적 신학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⁹⁾ 하지만 역대기 사가는 이 개념을 후기 유대교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옳을 듯하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합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외국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기 사가는 이 낯선, 그리고 새로운 유대인 구성원을 “나그네”로 칭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37)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Jerusalem: Bialik, 1977), 335-339쪽.

38) R. Martin-Achard, “גֵּרִים,” *THAT I* (1984), 410쪽.

39) R. de Vaux, *Ancient Israel*, (New York: McGraw-Hill, 1965), 487쪽.

한 부분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형의 결과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⁴⁰⁾ 역대기 사가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나그네”(גֵּר 게림)는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특별히 북 왕국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앗시리아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이방 민족들(왕하 17: 24)의 숫자와 영향력이 이스라엘 땅에서 현저하게 증가되던 히스기야 시대에 매우 중요하였던 것이다.⁴¹⁾ 역대기 사가는 누가 “나그네”(גֵּר 게림)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나그네”가 그의 포괄적인 “이스라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하 30장 25절의 전후 맥락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여러 계층들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위 구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회중,”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나그네”의 개념들을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라는 좀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았다. 언어학적이고 문학 비평적인 연구 결과 각각의 개념들이 지니고 있는 다의적 의미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쉽게 해석될 수 없고, 다른 개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함께 분석할 때에야 비로소 그 분명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회중”(קָהָל 카할)은 원칙적으로나 대하 30장에서나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 없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함께 등장하는 보조 개념들이나 관용구 혹은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성격이 자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대하 30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회중”은 공통적으로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와 관련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부사 “온”(כֹּל 콜)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함께 사용됨으로 축제 참여 규모의 전체성과 통일성을 암시하고 있다(대하 2, 4, 23, 25). 그리고 대하 30장 13절의 “심히 큰 회”(קָהָל לְרַב מְאֹד 카할 라로브 메오드)는 히스기야에 의해 실행된 유월절 축제의 엄청난 규모를 강조하고

40)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328-334 쪽.

41) S. Japhet, *2 Chronik*, 401쪽.

있다. 대하 30장 25a절의 “유다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은 유월절 축제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집단이 온전한 참여를 하였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세 개의 추가적인 사회적 특별 그룹들과 함께 축제 공동체의 전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대하 30장 25a절에서 유다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하 30장 25aβ절의 “이스라엘”(יִשְׂרָאֵל 이스라엘)은 분명히 옛 북 왕국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대기 사가가 이스라엘의 전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기꺼이 활용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축제 거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고(대하 30: 1) 백성들의 유월절 축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대하 30: 6)로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נָגִיב 게림)”는 옛 북 왕국 지역에 거주했던 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나그네”는 현재 북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거나 북쪽에서 내려와 남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하 30장 25ba절의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는 옛 북 왕국 지역에서 내려온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유다로 와서 완전히 정주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만일 히브리어 와우(ו)를 종속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면, “나그네”는 북쪽에서 내려와 현재 남쪽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히브리어 접속사를 병렬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 본문의 구문론으로 볼 때 훨씬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 “나그네”는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는 개종한 외국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하 30장 25ba절의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는 유다에 소속된 백성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로 내려온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개종한 외국인들”이 된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는 현재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재통합한 위대한 잠재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세 번째의 위대한 역사의 별이다. 어쨌든 “나그네”는 외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살면서 아웨 종교로의 개종을 통해 비(非)이스라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된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들에게도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6. 참고문헌

-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 (2006년 12월), 80-97쪽.
- 김 정우, 「구약통전(하)」 (서울: 이레서원, 2003).
-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 (2006년 8월), 69-85쪽.
- 이 희학, “히스기야 제의개혁의 역사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 (2007), 33-55쪽.
- 임 현준,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 상,” 「구약논단」 31 (2009년 3월), 114-136쪽.
- Ackroyd, P. R., “The Theology of the Chronicler,” *LTQ* 8 (1973), 101-116쪽.
- Ackroyd, P. R., “The Chronicler as Exegete,” *JSOT* 2 (1977), 2-32쪽.
- Becker, J., *2 Chronik* (NEB 20), (Würzburg: A Töpelmann, 1988).
- Camp, L., *Hiskija und Hiskijabild. Analyse und Interpretation von 1 Kön 18-20* (MThA 9), (Altenberge: Telos-Verlag, 1990).
- Coggins, R. J.,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the Chronicle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on the New English Bible), (London: Cambridge UP, 1976).
- Cohen, M., “Le ‘ger’ biblique et son statut socio-religieux,” *RHR* 207 (1990), 131-158쪽.
- Dillard, R. B., *2 Chronicles* (WBC 15),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 Galling, K.,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 Gerleman, G., “חִשְׁקִיָּא,” *THAT* II (1984), 782-785쪽.
- Goldingay, J., “The Chronicler as Theologian,” *BTB* 5 (1975), 99-126쪽.
- Haag, H., “Das Mazzenfest des Hiskia,” H. Gese/H. P. Rüger(Hg.),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Kevelaer: Neukirchen-Vluyn, 1973), 87-94쪽.
- Hanks, T. D., “The Chronicler: Theologian of Grace,” *EvQ* 53 (1981), 16-28쪽.
- Hossfeld, F.-L./E. M. Kindl, “חִשְׁקִיָּא,” *ThWAT* VI (1989), 1204-1222쪽.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Jerusalem: Bialik, 1977).
- Japhet, S., *2 Chronik* (HThK AT), (Freiburg: Herder, 2003).
- Kraus, H.-J., "Zur Geschichte des Passah-Massot-Festes in Alten Testament," *EvTh* 18 (1958), 47-67쪽.
- Levin, C., "Joschia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ZAW* 96 (1984), 351-371쪽.
- Martin-Achard, R., "גור," *THAT* I (1984), 419-412쪽.
- Mosis, R.,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s* (Freiburger theologische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 Müller, H.-P., "קהל," *THAT* II (1984), 609-619쪽.
- Myers, J. M., *II Chronicles* (AncB 13),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5).
- Myers, J. M., "The Kerygma of the Chronicler: History and Theology in the Service of Religion," *Int* 20 (1966), 259-273쪽.
- Rudolph, W., *Chronikbücher* (HAT 21), (Tübingen: J. C. B. Mohr, 1955).
- Steins, G., *Die Chronik als kanonisches Abschlußphänomen* (BBB 93), (Bonn: Peter Hanstein Verlag, 1995).
- Strübind, K., *Tradition als Interpretation in der Chronik. König Josaphat als Paradigma chronistischer Hermeneutik und Theologie* (BZAW 201),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 Throntveit, M. A., *The Significance of the Royal Speeches and Prayers for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Chronicler*,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2).
- de Vaux, R., *Ancient Israel*, (New York: McGraw-Hill, 1965).
- de Veris, S. J., "Moses and David as Cult Founders in Chronicles," *JBL* 107, No. 4 (1988), 619-638쪽.
- Weinberg, J. P., *Der Chronist in seiner Mitwelt* (BZAW 239),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6).
- Weippert, H., "Die deuteronomistischen Beurteilungen der Könige von Israel und Juda und das Problem der Redaktion der Königsbücher," *Bib* 53 (1972), 301-339쪽.
- Welten, P., *Geschichte und Geschichtsdarstellung in den Chronikbüchern* (WMANT 4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3).
- Willi, T., *Die Chronik als Auslegung. Untersuchungen zur literarischen Gestaltung der historischen Überlieferung Israels* (FRLANT 1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Williamson, H. G. M., *1 and 2 Chronicles* (NCB),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2).
- Zobel, H.-J., “**חִיזוּן**,” *ThWAT* III (1982), 986-1012쪽.

검색어
회중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나그네
히스기야
유월절
역대기 사가

투고일: 2010년 3월 12일
심사일: 2010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Studies on the Meanings of “the Assembly, Israel, and the Sojourners” in 2 Chronicles 30: 25

Hee-Hak Lee,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s of “the Assembly of Judah,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the whole assembly that came out of Israel, and the sojourners” in 2 Chronicles 30:25. They were the participants of the Passover festival that Hezekiah, king of Judea, held. This indicates that all the classes of peo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Kingdom attended the nationwide festival. The reference to the various groups of people reveals that the Passover festival, that king Hezekiah held, was the highest and largest one among all other ones in the nation. Hezekiah was a special king to the writer of Chronicles. He was the king who purified the temple of Jerusalem, Yahweh worshipper who reformed the Yahweh rituals, and an idealistic ruler who resembled David and Solomon. The writer of Chronicles emphasized that Hezekiah was the first one who reunited the South and North Kingdoms - because the two kingdoms had been vanished from the historical scenes - after the reign of David-Solomon. This means that Hezekiah was a great king who reunited Israel, so, during his rule, Israel again had only one king and one temple, and had a vast territory, extended from Beersheba to Dan.

The word, “assembly”(קהל), several times appearing at 2 Chronicles Chapter 30, was commonly related to the Passover festival of Hezekiah, and the continuing and repeated uses of Hebrew adverb, “all”(כל), may indicate totality and unification of the festival participations. “The whole assembly of Judah” and “the whole assembly that came out of Israel” in the verse 25 mean that the two different groups legitimately participated in the Passover festival, and formed a whole festival community with other three additional groups, which were socially special.

Since 2 Chronicles 30:25a was referring to Judea, “Israel”(ישׂראל) of 2 Chronicles 30:25aβ definitely signified the territory of the old Northern Kingdom. The purpose of the writer of Chronicles, using “Israel and Judea” complementarily, was to emphasize the wholeness of Israel. For that purpose, king Hezekiah also wrote letters to “Israel and Judea” to discuss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festival(30:1) and sent messengers to “Israel and Judea”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at the festival(30:6).

“The sojourners”(גרים) might have been “the converted Gentiles” who were at those days living in the northern territory or in the southern area, after having moved down from the north.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the Passover festival was also given to those who were the foreign immigrants to Israel and, giving up their identities as non-Israelites, converted to the Yahweh religion. This indicates that not only Jews but also all the Gentiles attended the Passover festival of king Hezekiah. The writer of Chronicles describes king Hezekiah as a great ruler who reconsolidated whole Israel. To him, Hezekiah was the third greatest king only after David and Solomon.

Keywords

assembly
Israel
Land of Israel
sojourner
Chronicler
Hezekiah
Passover